

달라지는 교원양성 쟁점은… 교육대 통폐합, 교사선발 축소

국가교육회의, 내달 개편안 발표
교원 '수급 규모·교육과정' 압축
'교·사대 통합안'은 일단 보류
교대생 "학급당 학생수 현실화를"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 개편안 발표를 한 달 앞둔 가운데, 교원수급 규모 감축 여부와 교대·사범대 교육과정 개편으로 의제를 압축하고 논의의 틀을 좁히고 있다. 교대생 및 교원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국가교육회의는 '선발 축소' 기조를 굽히지 않으며 이견을 좁히지 않는 모양새다. 교육대학·사범대학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은 12월 중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숙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성규모'와 '양성교육과정 개편'을 핵심의제로 삼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7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가팔라 교원채용 계획을 수정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뉴스

하고 당초보다 초등교사 임용 수를 줄이는 등 2023년부터는 새로운 수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핵심당사자 30여명과 일반국민 300여명이 참여해 지난 9월 말부터 집중숙의과정에 들어간 상태이다. 총 9차 시로 계획된 숙의는 이달 중 온라인 숙의를 거쳐 12월 5일 협의문 내용이 확정된다. 국가교육회의는 12월 중순 최종 정리한 협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숙의의 결과를 참고해 중장기 미래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 마련 시 기본 방향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국가교육회의 개편안 마련 핵심

당사자 집중숙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안건은 교원수급 감축이다. 학령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초등의 경우 교대 양성 인원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도 그 과정에서 교육대학 통폐합을 통해 양성 인원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 자격 유연화도 쟁점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초·중등 통합학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교사 수급 문제가 초·중등 교사 자격 연계의 필요성으로 논의되고 있다. 앞서 거론했던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 통합과 맞물

리는 주제지만, 전국 교육대와 사범대 학을 통합하는 안은 일단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대 총장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국초등교원양성대학교총장 협의회(교총협)가 교대 교수와 직원, 학생 등 87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중·고등학교 교원을 기르는 사범대 통합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97.7%로 나타났다.

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기 다른 체제로 운영돼왔으며 고유한 장점이 있다"면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논의, 사회적 합의 없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두 기관을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 교육의 연계는 학습자 발달 단계에 특화된 수업, 교육과정 연계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안도 제시됐지만, 이 또한 교원단체의 반발에 직면했다. 교총협 설문조사 결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95.8%를 차지했다. 교총협은 "석사학

위를 소지한 교사 비율이 전체 3분의 1 을 넘는 상황에서 학위 취득이 교사의 실천적 전문성을 신장시켰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지역 교육청 및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 수급 축소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미래교원양성체제 개편 방향으로 제시한다. 교육부의 교원수급 감축에 반대해온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돼야 하고 학급 수(교원 수)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대생과 일부 교원단체도 학급당 학생 수를 현실화하는 계기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대생들의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급당 학생 수 3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 중 14.6%를 차지하는 만큼,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빠른 도입이 필요 한 상황"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학교 교육의 역할 변화와 학습격차 해소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교원양성체제의 발전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h@metroseoul.co.kr

"막막한 마음에"… 구직자 절반 '묻지마 지원'

잡코리아 하반기 신입 구직자 설문
"채용공고 보이면 무조건 지원"
소신 지원자 "희망 기업에 집중"

최근 코로나19 여파가 채용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일단 기업들의 채용공고에 무조건 입사지원을 하고 보는 '묻지마 지원자'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가 올 하반기 신입직 구직활동을 한 구직자 1415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0.5%가 '묻지마 지원, 문어발식 지원(최대한 많은 곳에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희망 기업에만 소신 지원했다'는 응답자는 49.5%였다.

특히 묻지마 지원의 경우 취업 직무 설정을 아직 못한 그룹이 73.2%로 직무 설정을 한 그룹 48.4%에 비해 24.8%

나 높았다.

소신 지원자들은 '취업 희망 기업에만 집중하기 위해(기업분석, 입사지원에 시간이 많이 들어서)(61.0%)' 묻지마 지원 및 문어발식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취업 희망 기업, 직무가 명확해서(40.1%) ▲최종합격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20.7%)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동인 것 같아서(15.8%) ▲기업 차원에서 묻지마 지원자는 필터링을 한다는 정보를 접해서(11.2%) 등의 이유로 묻지마 지원, 문어발식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묻지마 지원을 한 취준생들의 경우는 '막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일단 여기저기 입사지원서를 넣었다'는 응답이 7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업들의

채용공고가 적어서 일단 보이면 무조건 지원(39.4%) ▲취업 공백기간을 줄이기 위해서(17.7%) ▲어떤 기업, 직무가 나와 맞는지 모르겠어서(14.1%) ▲이미 취준생 다수가 묻지마 지원을 하고 있어서(13.3%) ▲인적성, 면접전형 등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10.3%) 등의 이유로 문어발식 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취업 희망 기업·직무를 따져 지원하는 소신 지원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업분석을 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사업영역, 근무환경 등 지원할 기업을 분석한 후 입사지원 하는지'란 질문에서 '소신 지원자 그룹 중 87.1%'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묻지마 지원자 그룹의 경우 42.1%가 '기업분석 후 지원한다'고 답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현진 기자

경희사이버대학원 박귀선 동문, 복지부 단체표창

경희사이버대학원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 전공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는 '2020 장애인먼저실천상'에 박귀선 동문이 운영하는 담십포가 보건복지부장관 단체표창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박귀선 동문이 운영중인 담십포는 경력보유여성들과 함께 시각장애아동의 점자학습을 돋는 점자촉각책과 점자촉각놀이교구재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는 여성기업이며 사회적기업이다. 담십포 대표 박귀선 동문은 인형을 만들고



복아트 활동을 하던 취미가 지금의 공예작가로 문화예술가로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 발전기금 2000만원 기탁

인천대는 최계운 명예교수가 인천대학교발전기금에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교수는 기탁한 발전기금은 도시과학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최계운 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인천대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교수(왼쪽 다섯번째)가 발전기금을 기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대

고려대, 청년기업가 제품·서비스 공개

내일 '가을 츄츄데이' 개최
전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

고려대는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2020 가을 츄츄데이(2020 Fall CHOO CHOO Day, 이하 츄츄데이)'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츄츄데이는 고려대 경영대학 스타트업 연구원에 입주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거친 청년 기업가들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공개 발표하고 시연하는 데모데이 행사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 행사로 전환해 실시된다. 행사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우리 동네 배달원, 실버 세대 도보 배달 서비스 '실버라이닝' ▲대학생 멘토와 고등학생 멘티의 만남, 자기주도 학습을 돋는 멘토링 플랫



한편 고려대 경영대학 스타트업 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경영대학 내 스타트업 육성 및 연구기관으로 2016년 9월 설립됐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학생 메이커피짜축제’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3~14일 '2020 서울학생 메이커피짜축제'를 온·오프라인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서는 '고짜가 세상을 구한다'를 주제로 ▲메이커 전시체험▲ 메이킹 마라톤▲메이커 토크 콘서트▲ 집콕 메이킹▲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오프라인 행사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 파이낸에서 진행되고 온라인 행사는 '메이커 온 채널'에서 시청 할 수 있다. 학생·교사·학부모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